

도보여행 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alking-tour Motivation Scale:
A Case of Jeju Ollegil

박 영 아* · 현 용 호**

Park, Young-A · Hyun, Yong-Ho

ABSTRACT

Albeit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he walking-tour tourism, little effort has been invested to understand people's motivation for walking-tours and to develop a related measurement sca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walking-tour scale as perviously addressed by Park & Hyun (2009). Towards this goal, as suggested by Park & Hyun, eight dimensions were purified through a means of expert judgement and pre-testing. Following this, a survey of 300 participants who visited Course 7 of Jeju Ollegil was analysed to validate the dimensions of the measures. The scale items were then purified to examine the scale's dimensionality, and to evaluate the scale's validity, factor structure, and reliability including cross-validation. The scale development procedure yielded a four factor measurement scale with acceptable level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Four motivational dimensions (14 items) of walking-tour were labelled: Self-introspection, Self-meditation, Self-achievement, and Self-purification. The findings and applications of the developed scale are discussed both in terms of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핵심용어(Key words) : 도보여행(Walking-tour), 제주 올레길(Jeju Ollegil),
척도개발 (Scale development), 척도타당도 (Scale Validation),
도보여행동기(Walking-tour motivation)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e-mail: yapark@cu.ac.kr

** 대구가톨릭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e-mail: martinhyun@cu.ac.kr

I. 서론

도보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신체적인 활동으로(Mintel, 1998), 도보가 인기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Ekkekakakis, Backhouse, Gray & Lind, 2008). Manson, Kearns & Bond(2011)에 따르면, 도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는 곳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활력소와 생기를 넣어 사고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족애,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도보여행은 국내에서 붐을 이룰 정도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영아, 2012, 최병길·이영관, 2011). 유행처럼 퍼지는 도보여행의 증가는 제주 올레길의 인기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의 약 60여개 도시에서 100여개의 코스가 생겨났으며, 지자체들은 지금도 새로운 도보여행길 코스를 계획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정철·정란수·이훈, 2011). 문화체육관광부(2010)에 따르면 2009년도에 비해 2015년에 도보여행객이 3배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7년 1코스로 시작한 제주 올레길은 2012년 5월에는 20코스를 개장하게 되었다. 제주 올레길은 9월경 21코스를 개장하게 되면 정규 21개코스 비정규 5개코스를 모두 합쳐 430 km에 이르는 26개 코스가 5년만에 완성하게 된다(동아일보, 2012).

이처럼 국내의 도보길 코스 개발 열기는 도보관광객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자생적·생태적·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광과 여가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현상으로써 도보관광객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사람들이 왜 도보여행을 하고 도보여행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박종구·심재명·진이환, 2007) 이는 항상 동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동기는 그러한 의문을 연구하는 기본도구으로써 사용되어 왔다(Ajzen & Fishbein, 1977).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관광객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광동기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Crompton, 1979; Fodness, 1994; Jarno & Raja, 2012).

오늘날 국내 관광산업에 도보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도보여행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도보관광 동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광동기가 아닌 도보여행 동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관광동기는 폭넓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유인요인과 추진요인(Klenoksy, 2002), 신기성추구와 탈출(Iso-Ahola, 1982)등으로 분류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해왔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4-9개 정도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동기를 분류해왔다(Kim & Eves, 2012; Jarno & Raja, 2012).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광동기로 도보관광 동기를 측정할 경우 평가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도보관광 동기라는 개념에 대한 측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내에 도보관광의 동기에 관한 연구로는 도보여행의 동기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한 박영아와 현용호(2009)의 연구가 있다.

박영아·현용호(2009)는 제주 올레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도보여행 동기를 탐색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제주 올레길 7코스(외돌개-월평포구)를 방문하여 예비인터뷰를 거쳐 심층면접과 단순면접방식을 실시하여 제주 올레길을 방문하는 동기를 조사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제주 올레길을 방문한 동기는 자연친화/체험, 호기심, 자기사색, 자아성취, 자기정화, 건강증진, 가족관계증진, 사고 등 총 8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관광동기에서 많이 밝혀지지 않았던 자기사색, 자아성취, 자기정화가 도보동기가 되어 제주 올레길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도보동기와 자아에 대한 인지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박영아·현용호(2009)는 실증주의에 기초한 계량적 접근방법보다는 주관적인 견해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동기가 탐색되어졌다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연구로 양적·질적 두 가지 연구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한 가지 접근법만을 채택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최소화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에서 그동안 계량적 분석위주의 양적연구방법론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 질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어떤 연구방법론을 선택하느냐는 연구자 인식의 틀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그 문제의식을 논증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인숙, 2007). 최근 사회과학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서로 상이한 영역으로 구분해 왔으며 서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점차 이 두 연구방법들을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지고 실제로 관광학 분야에서도 양쪽 방법론의 혼합을 통해 척도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개발된 척도를 활용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Ewing & Napoli, 2005; Hung & Petrick, 2010). 타당성과 객관성 부족이라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한계점과(Sheldon, 1978) 양적연구 방법의 한계점에 대해 각자의 패러다임 속에서 서로를 비판해왔으며(Smith, 1987)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창출된 것이 혼합방법론이다. 혼합방법론의 핵심은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각 연구방법론의 강점을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양

적·질적 접근의 혼합을 통해 한 쪽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비해 더 나은 이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Creswell & Plano Clark,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일차적인 결과물을 도출한 2009년도 『관광학연구』에 게재된 박영아·현용호(2009)의 도보관광 동기를 척도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양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다수에게 적용 가능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혼합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성적 방법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통한 도보관광 동기개발의 체계화와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0)는 걷기 중심의 길 만들기과 걷기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도보여행객은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도보관광은 최근 급격한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유명한 몇 개의 코스를 제외하고는 사람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고려하고 참여자 만족을 극대화하고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도보여행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측정항목 결정: 안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

본 연구의 목적은 박영아·현용호(2009)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밝혀진 도보여행 동기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친화/체험, 호기심, 자기사색, 자아성취, 자기정화, 건강증진, 가족관계증진, 사고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8개의 주제에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항목들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도식화 되어있다. 질적연구를 통해 개발된 올레길 방문 동기의 30개 초기 항목은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와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확보하여야만 한다(Churchill, 1979). 내용 타당도란 측정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이론적 내용 범위에 적절한 수준을 대표하는 정도를 말한다(Nunnally & Bernstein, 1994). 이러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면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Hardesty & Bearden, 2004). 안면타당도란 측정항목이 측정하고자하는 개념을 반영하는 정도로 정의되거나(Nunnally & Bernstein,

1994) 평가도구로서의 측정항목들이 목표로 하는 개념과 평가목적에 대해 응답자나 사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말한다(Anastasi, 1988). 안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전문가 판단(expert judgement)을 활용하였다(Unger & Kernan, 1983; Martin & Eroglu, 1993). 따라서 안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Zaichkowsky(1985)가 제시한 전문가 판단법을 활용하였으며 방문동기개념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광학계 전문가 2인과 심리학계 전문가 2인 총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안면타당도 평가를 의뢰하였다. 확실히 대표함(clearly representative), 약간 대표함(somewhat representative), 전혀 대표하지 않음(not representative of the construct of interest)으로 구성된 3점 척도를 제시하여 4명의 전문가들 중 최소한 세 명이 최소한 약간 개념을 대표한다고 항목을 평가했을 경우 그 항목을 보유하고 있다. Bearden & Netemeyer (1999)가 제시한 척도 평가 기준인 최소 3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닌 건강증진요인(2 항목), 가족관계증진 (1항목), 사교(1항목)인 세 개의 요인을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제외시켰다.

〈표 1〉 질적연구를 통한 도보여행 방문동기 항목 (박영아·현용호, 2009)

주제	항목명	개발된 항목
자연친화/ 체험 (NAEX)	NAEX1	걸으면 옛 정취가 느껴질 것 같아서
	NAEX2	길을 찾아 걸으면 자연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좋아서
	NAEX3	걸으면서 제주 자연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NAEX4	천혜의 멋진 곳을 직접 걸으며 느끼기 위하여
	NAEX5	걸으면서 주변경치와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어서
	NAEX6	자연그대로의 길을 걷고 싶어서
	NAEX7	걸으면서 자연과 마음이 통하는 느낌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호기심 (CURI)	CURI1	올레길이 많이 알려져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서
	CURI2	매체를 보고 궁금해서
	CURI3	주변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CURI4	올레길을 걷는 느낌이 궁금해서
자기사색 (SEIN)	SEIN1	걸으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보고 싶어서
	SEIN2	걸으면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 보고 싶어서
	SEIN3	걸으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해서
	SEIN4	걸으면서 조용히 생각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어서
	SEIN5	걸으면서 지나간 일들과 미래를 계획 할 여유를 갖고 싶어서
	SEIN6	걸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SEIN7	걸으면서 내 자신의 주변에 대해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서
	SEIN8	걸으면서 여유를 느끼며 생각하는 슬로우여행을 하고 싶어서
자아성취 (SEAC)	SEAC1	선택하여 걷는 자유로움과 땀 흘리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
	SEAC2	올레길을 걸어 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SEAC3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SEAC4	땀 흘리면서 경치를 느끼고 걸을 수 있어서
자기정화 (SEPU)	SEPU1	걸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 지기 때문에
	SEPU2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SEPU3	도시에서 찌든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건강증진 (HEAL)	HEAL1	건강 증진을 위해서
	HEAL2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생각해서 올레길을 걸어보고 싶어서
가족관계증진 (FAML)	FAML1	가족들과 함께 걸어보고 싶어서
사교(SOCO)	SOCO1	걷기 동우회와 함께하고 싶어서

따라서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된 5개 요인에 대한 안면타당도 평가 결과, NAEX1, CURI2, 두 항목을 제외한 측정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약간 개념을 대표한다는 이상으로 평가가 내려져 최종 확보된 24개의 항목들의 안면타당도가 확보되었고 추가적인 항목정제를 위해 사전예비조사에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안함, 5=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다.

2. 측정항목 정제 (Item purification)

일반적으로 새로운 척도들이 개발되고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예비조사가 요구된다(Hair, Babin, Anderson & Tatham, 2009). 적절한 항목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는 모집단과 비슷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Hair *et al.*, 2009). 따라서 최근 2년간 제주도 올레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대구에 거주하는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24개의 설문항목에 대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가 초기항목을 정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Ladhari, 2010). 본 연구에서는 Ewing & Napoli(2005)가 사용하였던 두 단계로 이루어진 위계적 항목 정제 절차를 따랐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 수정된 항목-전체상관계수가 0.4 이하인 항목으로 밝혀진 NAEX2, NAEX3, NAEX4, NAEX5, NAEX6, NAEX7, CURI1, CURI3, CURI4 등 총 9항목이 우선 제거되었고 두 번째 단계로 수정된 항목-전체상관계수가 0.5이하로 밝혀진 SEPU3 항목을 제거하여 도보여행 방문동기에 대한 타당도 평가를 위해 총 14항목이 본 조사에 이용되었다.

〈표 2〉 전체 항목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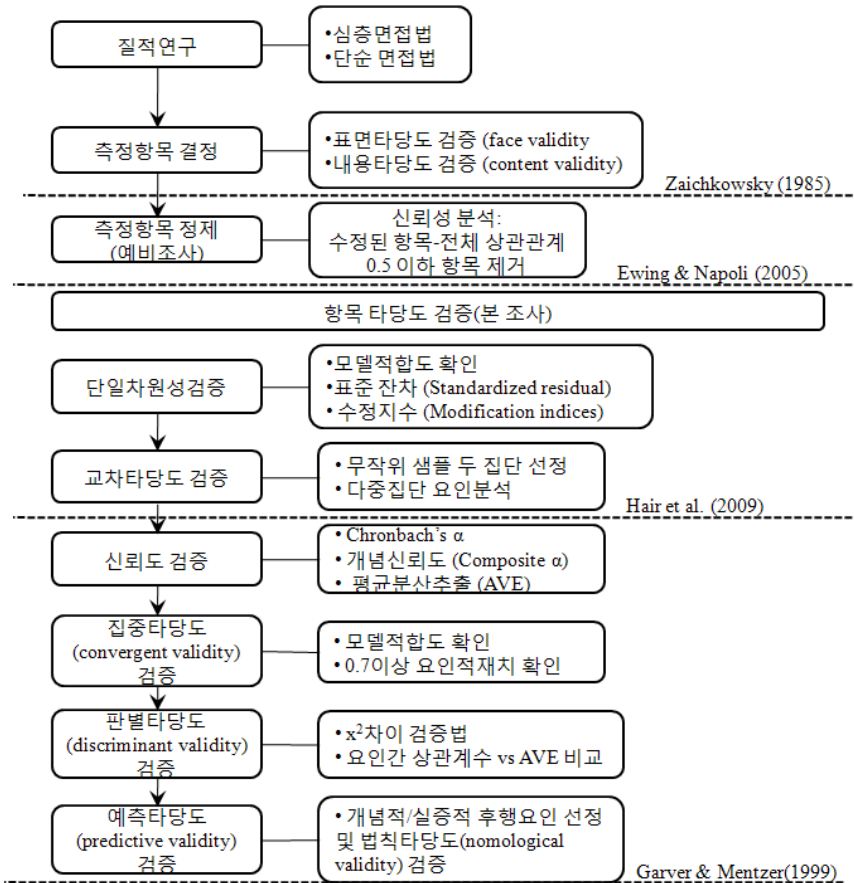
요인	항목명	항목평균	수정된	제공다중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항목-전체상관관계	상관관계	
자기사색 (SEIN)	SEIN1	3.40	0.709	0.599	0.930
	SEIN2	3.36	0.758	0.658	0.929
	SEIN3	3.61	0.749	0.626	0.929
	SEIN4	3.65	0.668	0.507	0.932
	SEIN5	3.50	0.732	0.599	0.930
	SEIN6	3.53	0.716	0.546	0.930
	SEIN7	3.60	0.701	0.564	0.931
	SEIN8	3.65	0.691	0.542	0.931
자아성취 (SEAC)	SEAC1	3.40	0.625	0.449	0.933
	SEAC2	3.56	0.693	0.562	0.931
	SEAC3	3.51	0.625	0.466	0.933
	SEAC4	3.58	0.652	0.468	0.932
자기정화 (SEPU)	SEPU1	3.68	0.694	0.601	0.931
	SEPU2	3.58	0.651	0.551	0.932

3. 척도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확보를 위한 분석절차

구성타당도는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하고자하는 하는 개념을 얼마만큼 측정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Churchill, 1979). 구성타당도를 확보하기위해서 내용타당도,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 신뢰도,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와 같은 하위 타당도들이 검증되어야만 한다(Garver & Mentzer, 1999). Garver & Mentzer(1999)에 따르면, 단일차원성, 신뢰성,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와 같은 통계적 특성(statistical properties)을 검증하기에 앞서 내용타당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보여행 방문동기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전문가판단을 통해 이미 확보되어 통계적 특성들에 대한 검증이 본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또한 새롭게 개발되는 척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타당도를 실시한다(Hair et al., 2009). 교차타당도는 같은 모집단에서 서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여러 집단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Hair et al., 2009).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SPSS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각각 150명으로 구성된 두 집단을 대상으로 교차타당도를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 확보를 위해 앞서 언급된 통계적 검증은 전통적인 분석방식보다 더 엄격한 검증법으로 알려진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Medsker, Williams & Holahan, 1994).

본 조사는 7코스 올레길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약 6일에 걸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코스로써 알려진 7코스 올레길이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1〉 구성타당도 검증 분석절차

조사원들은 동질성 및 이질성과 관련하여 조사원들이 응답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항목은 예비조사를 통해 정제된 14개의 도보여행동기 항목들과 다항목으로 이루어진 방문만족(3문항), 재방문의도(3문항), 추천의도(3문항)로 설문이 구성되었다.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설문항목

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사전에 순수하게 개별여행으로써 올레길을 걷기 위해 방문하였는지 혹은 여행을 통해 단체여행 코스로써 제주 올레길을 이용한 여행객인지 질문하였다. 또한 제주도민은 올레길을 걷기에 지리학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순수 방문동기 측정이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의 목적상 제외하고 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을 응답해준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주어졌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 배포되어 321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중 무응답치가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300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우도법을 근간으로 하는 AMOS 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그림 1>에 나타난 분석절차에 따라 도보여행동기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III. 실증 분석 연구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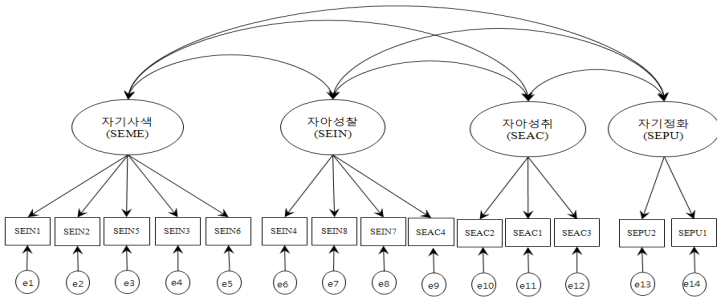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9.4%, 여성이 50.6%로 구성되어 있고, 20대와 30대 방문객이 5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49%를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사이가 70.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응답자의 대부분의 전문대졸업 이상(88.3%)이었으며, 결혼을 한 방문객이 62.3%로 나타난 반면 미혼자는 29.7%로 나타났다.

2. 탐색요인분석

확인요인 모델 구성을 위해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는 본 연구의 연구 모델과 관련된 구성개념들에 대한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varimax 방식에 따른 주성분 요인분석을 도입하였고,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EFA를 통해 공통성 수치가 0.4이하인 항목들과 요인적재치가 0.5이상으로 요인추출기준을 적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림 2>가 1차순 확인요인모델 분석을 위해 제시되었다.

〈표 3〉 구성 모델에 대한 탐색 요인 분석 결과

요인명 (a)	변수	요인 적재치	공통 성	아이겐값	
자기사색 (SEME)	SEIN1	걸으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보고 싶어서	0.757	0.733	7.670 (50.58)
	SEIN2	걸으면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싶어서	0.746	0.765	
	SEIN5	걸으면서 지나간 일들과 미래를 계획 할 여유를 갖고 싶어서	0.688	0.688	
	SEIN3	걸으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해서	0.628	0.711	
	SEIN6	걸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0.580	0.646	
	SEIN4	걸으면서 조용히 생각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어서	0.741	0.714	
자기성찰 (SEIN)	SEIN8	걸으면서 여유를 느끼며 생각하는 슬로우 여행을 하고 싶어서	0.740	0.724	2.773 (11.30)
	SEIN7	걸으면서 내 주변에 대해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서	0.686	0.695	
	SEAC4	땀 흘리면서 경치를 느끼고 걸을 수 있어서	0.550	0.614	
자아성취 (SEAC)	SEAC2	올레길을 걸어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0.773	0.793	1.463 (7.64)
	SEAC1	선택하여 걷는 자유로움과 땀 흘리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0.759	0.721	
	SEAC3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0.653	0.669	
자기정화 (SEPU)	SEPU2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0.808	0.819	1.082 (5.238)
	SEPU1	걸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기 때문에	0.749	0.801	



〈그림 2〉 도보여행 방문동기 1차순 확인 요인 모델

3. 확인요인분석

구성 타당성의 통계적 특성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된 확인요인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확인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명	변수	표준화 계수	t 값	SMC	AVE	Chronbach a	Composite a
자기사색 (SEME)	SEIN1	0.727	12.850	0.529	0.605	0.890	0.885
	SEIN2	0.784	14.051	0.615			
	SEIN5	0.796	14.316	0.633			
	SEIN3	0.814	14.696	0.662			
	SEIN6	0.767	-	0.588			
자아실찰 (SEIN)	SEIN4	0.743	11.422	0.552	0.555	0.828	0.832
	SEIN8	0.774	11.835	0.599			
	SEIN7	0.778	11.882	0.605			
	SEAC4	0.680	-	0.462			
자아성취 (SEAC)	SEAC2	0.824	12.719	0.680	0.572	0.791	0.800
	SEAC1	0.718	11.343	0.516			
	SEAC3	0.722	-	0.521			
자기정확 (SEPU)	SEPU2	0.840	14.182	0.706	0.673	0.803	0.804
	SEPU1	0.800	-	0.639			

확인요인모델 적합도: χ^2 값=119.983 (p (0.01), χ^2/df =1.714, GFI=0.947, AGFI=0.921, TLI=0.973, CFI=0.980, RMSEA=0.049, SRMR=0.032)

1) 단일차원성 검증

구성개념에 대한 단일차원성은 측정항목들(a set of indicators)이 측정하고자 하는 오직 하나의 개념만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개 이상의 개념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Anderson & Gerbing, 1988). 단일차원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모델 적합도 기준을 검토한다(Garver & Mentzer, 1999). Standardized RMR과 RMSEA는 0.08 이하면 좋은 모델로 판단하고 GFI, CFI, TLI는 0.9에 가깝거나 높으면 좋은 모델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표 4〉에 제시된 확인요인모델 적합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적합도의 χ^2 값 (119.983, p <0.01)이 유의미하여 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적합지수들이 GFI=.947, AGFI=.921, TLI=.973, CFI=.980, RMSEA=.049, SRMR=.032으로 모든 기준치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항목들의 표준화된 잔차(standardized residuals)의 크기가 2.00이나 2.58 이하이어야 한다(Steepekamp & van Trijp, 1991). 셋째, 10이상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s) 값이 존재하게 되면 요인간 혹은 오차항간 중복 적재(cross-loading)가 되어 단일차원성을 저해하게 된다(Byrne, 2001). 따라서 단일차원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요인 간 혹은 오차항간 중복적재치가 전혀 없

어야 한다(Hair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모델의 표준화된 잔차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값이 $|-1.399|$ 으로 2.00보다 낮게 나와 단일차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MI 값이 11.929로 e1과 e2오차항간 공분산이 존재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오차항간 공분산을 연결하여 중복적재치=0로 만들었다. 공분산 연결을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Anderson & Gerbing, 1988), SEIN1(걸으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보고 싶어서)과 SEIN2(걸으면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싶어서)의 항목의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유사한 항목임을 알 수 있어 오차항 간 공분산 연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모든 기준치에 부합하고, 비교적 낮은 표준화 잔차 값을 보이며, 요인 간 혹은 오차항 간 중복적재(cross-loading)가 없어 도보여행 방문동기 척도에 대한 단일차원성이 확보되었다.

2) 교차타당도 검증: 다중집단 동등분석(Multigroup invariance analysis)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4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구조모형을 다중 표본에 적용시켜야 한다(Bollen, 1991). SPSS를 이용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통해 표본 1($n=150$)과 표본 2($n=150$)인 두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단 동등분석을 실시하였다. Yoo & Donthu(2001)의 연구에 따르면, 요인구조모형을 비제한한 모델(unconstrained)과 제한한(constrained) 모델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카이제곱 차이 검증법(χ^2 difference test)을 통하여 검증하여 두 모델 간 카이제곱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표 5〉에 다중집단 동등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표본 1과 표본 2로 이루어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동등성 검증에서 비제한된 모델 1과 동등제한된 모델 2간의 카이제곱 차이값이 14.217 ($p>0.05$)로 나와 요인구조모델이 두 집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4 요인으로 이루어진 도보여행동기 척도에 대한 교차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5〉 교차타당도 검증 결과

경쟁모델	χ^2	df	$\Delta\chi^2$	Sig.
모델 1: 비제한된 요인구조모델: 4 요인 모델	258.767	142		
모델 2: 제약된 요인구조모델: 4 요인 모델	272.984	152	14.217	0.163

3) 신뢰도 검증 및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검증

잠재요인을 측정하는 관찰항목들의 내적 일관성(Fornell & Larcker, 1981)이라고 하는 신뢰도는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들 중 하나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Mentzer & Kahn, 1995). Garver & Mentzer(1999)에 따르면, 탐색요인분석에서 제시되는 Chronbach's α 값과 확인요인분석에서 제시되는 개념신뢰도(composite α) 값을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평균 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개념신뢰도를 보조하는 측정치임을 감안하여 세 개의 신뢰도 값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AVE 값은 0.5 이상(Hair *et al.*, 2009), composite α (Fornell & Larcker, 1981)와 Chronbach's α (Dunn, Seaker & Waller, 1994)은 0.7이상의 값이 요구된다.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구성개념들의 Chronbach's α 와 composite α 값이 0.7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구성개념들의 AVE값 또한 0.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도보여행동기 척도들의 내적일관성인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한편, 집중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대표할 것이라고 가정된 관찰변수들이 똑같은 개념으로 집중되는 정도를 말한다. 집중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모형의 모델 적합도 수준, 잠재요인과 관찰변수들 간의 표준화계수의 크기, 방향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표준화계수의 크기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값은 0.7보다 크면된다(Steepekamp & van Trijp, 199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관찰항목들이 측정개념들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0.7를 상회하고 있고 p값이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보여행동기 척도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판별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검증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요인들간의 비유사성의 정도를 말하며 (Clark-Carter, 1997), 판별타당도를 확보하는데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Hair *et al.*, 2009). 하나는 카이자승 차이 검증법을 이용하는 것인데 순차적으로 개념간 상관계수에 대한 x^2 차이 검증법 (x^2 difference test)을 실시해야한다(Bagozzi & Phillips, 1982). 각각의 차이 검증법은 제약되지 않은 모델(unconstrained model)과 제약된 모델(constrained model)인 두 개의 모델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약되지 않은 모델이란 모든 구성개념들간 제약없이 상관관계를 연결한다.

하지만 제약된 모델에서는 특정한 두 개의 개념간 공분산이 1로 제약되어야하고 나머지 상관관계는 제약하지 않은 채 둔다. 두 모델에 대한 카이제곱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면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표 6〉 χ^2 차이 검증법을 통한 판별타당도 분석

경쟁모델	χ^2 차이 검증결과		
	χ^2	$\Delta\chi^2$	Sig.
비제약된 확인요인모델(df=71)	156.692		
자기사색-자아성찰 상관제약모델=1(df=72)	200.619	43.927	0.00
자아사색-자아성취 상관제약모델=1(df=72)	208.518	51.826	0.00
자아사색-자기정화 상관제약모델=1(df=72)	195.941	39.249	0.00
자아성찰-자아성취 상관제약모델=1(df=72)	214.352	57.660	0.00
자아성찰-자기정화 상관제약모델=1(df=72)	202.887	46.195	0.00
자아성취-자기정화 상관제약모델=1(df=72)	219.982	63.290	0.00

〈표 6〉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검증 결과가 p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제약된 확인요인 모델이 다른 제약된 모델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좋은 것으로 밝혀져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개념들이 AVE값과 개념간 상관관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훨씬 엄격한 검증방법으로 간주된다(Hair et al., 2009). Anderson과 Gerbing(1988)에 따르면 각 잠재 요인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하는 \sqrt{AVE} 값이 잠재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크면 다른 잠재요인들과의 상관관계보다 내적으로 더 높은 상관이 존재한다고 하여 요인들 간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서는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들이 \sqrt{AVE} 값을 넘지 않아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개념간 상관 계수가 0.8를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판별타당도 재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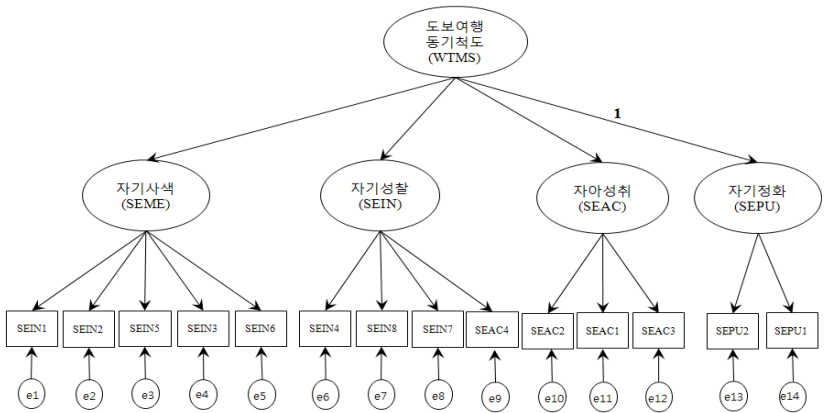
구성 요인	1	2	3	4
(1) 자기사색	0.778*			
(2) 자아성찰	0.452	0.745*		
(3) 자아성취	0.414	0.495	0.756*	
(4) 자기정화	0.376	0.434	0.359	0.820*

* 해당개념의 \sqrt{AVE} 값임

따라서 두 단계의 판별타당도 검증결과 도보여행동기 척도에 대한 판별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5.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 검증

본 논문의 목적이 도보여행동기 척도 개발인 점을 감안하여 4 요인으로 구성된 1차순 요인모델(〈그림 2〉 참조)을 바탕으로 〈그림 3〉과 같이 2차순 확인요인모델(second-order factor model)을 구성하여 검증이 요구된다.



〈그림 3〉 도보여행 방문동기 2차순 확인 요인 모델

만일 고차순 요인모델(higher-order factor model)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후행 변수들을 1차순 요인 모델보다 설명력이 높으면 고차순 요인모델의 대표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된다(Marsh & Jackson, 1999). 따라서 고차원 측정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결과들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고차원 요인모델이 좋은 모델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는지, 둘째, 고차원 모델이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후행변수를 기대한 만큼 예측력이 있는지 셋째, 저차순 요인모델(low-order factor model)보다 더 나은 예측타당성이 있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Hair et al., 2009). 도보여행동기 척도의 2차순 확인요인 모델 적합도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었다.

〈표 8〉 2차순 확인 요인 분석결과

2차순 CFA	표준화 계수	t 값	SMC	AVE	Composite α
SEME ← WTMS	0.835	11.802**	0.697	0.642	0.878
SEIN ← WTMS	0.802	10.570**	0.643		
SEAC ← WTMS	0.798	10.355**	0.637		
SEPU ← WTMS	0.769	-	0.591		
확인요인모델 적합도: $\chi^2_{값}=162.472$ ($p<0.01$), $\chi^2/df=2.226$, GFI=0.928, AGFI=0.896, TLI=0.954, CFI=0.963, RMSEA=0.064, SRMR=0.036					

전반적 적합도의 $\chi^2_{값}$ (162.472, $p<0.01$)이 유의미하여 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적합지수들이 GFI=.928, AGFI=.896, TLI=.954, CFI=.963, RMSEA=.064, SRMR=.036으로 모든 기준치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2차순 요인모델의 대표성의 첫 번째 기준을 만족시켰다. 또한 AVE 값과 개념신뢰도 값이 각각 0.5와 0.7를 넘어 내적일관성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측타당도는 법칙타당도(nomological validity)를 검증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Garver & Mentzer, 1999). 법칙타당도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실증적·이론적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Malhortra, Hall, Shaw & Crisp, 1996) 본 연구에서는 방문동기와 실증적으로 혹은 이론적인 영향관계로써 입증될 후행변수를 만족, 추천의도와 재방문의도로 선정하였다.

Yoon & Uysal(2005)의 연구에서 방문동기, 만족, 추천의도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Hung & Petrick (2010)의 연구에서 크루즈 이용동기와 이용의도간의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Kim & Eves(2012)는 지역 음식 동기와 미래행동의도간에 정(+)의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Huang & Hsu(2009)는 방문동기가 재방문의도의 예측요인으로써 타당함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법칙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법칙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야 한다 (Garver & Mentzer, 1999). 본 연구에서 1차순 확인요인모델과 2차순 확인요인모델로 구성된 두 가지 유형의 법칙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후행변수로써 만족, 재방문의도, 추천의도를 각각 3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표 9〉의 법칙타당도 검증 결과를 보면, 1차순 요인들은 세 개의 행동요인들 간의 영향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아 예측요인 모델로써 타당하지 않음이 밝혀진 반면, 2차순 확인요인모델로써 도 보여행방문동기(WTMS)는 재방문 의도를 제외한 올레길 방문만족($\beta=0.183$,

$p<(0.01)$ 과 올레길 추천의도($\beta=0.156$, $p<(0.05)$)에 정(+)^{의 영향을 주어 다른 종류의 방문동기척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측요인으로써 타당함이 밝혀졌다. 비록 2차순 도보여행방문동기 모델이 재방문의도의 예측변수로써는 적절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두 행동변수를 기대한 대로 정(+)^{의 영향관계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써 고차원 검증이론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도보여행동기 척도에 대한 2차순 확인요인 모델이 1차순 확인요인모델보다 예측력이 좋아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서 2차순 확인요인 모델이 1차순 확인요인모델보다 더 좋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 법칙타당도 검증 결과

법칙타당도 경로	요인 구조 수준					
	1차순 확인 요인 모델			2차순 확인요인모델		
	표준화 계수	t 값	p 값	표준화 계수	t 값	p 값
WTMS→올레길 만족				0.183	2.761**	0.006
SEME→올레길 만족	-0.019	-0.086	0.932			
SEIN→올레길 만족	-0.010	-0.043	0.966			
SEAC→올레길 만족	0.069	0.417	0.677			
SEPU→올레길 만족	0.171	1.004	0.315			
WTMS→올레길 재방문				0.101	1.485	0.138
SEME→올레길 재방문	0.171	0.730	0.465			
SEIN→올레길 재방문	-0.395	-1.645	0.100			
SEAC→올레길 재방문	0.201	1.138	0.255			
SEPU→올레길 재방문	0.150	0.839	0.402			
WTMS→올레길 추천				0.156	2.343*	0.019
SEME→올레길 추천	-0.138	-0.608	0.543			
SEIN→올레길 추천	0.371	1.613	0.107			
SEAC→올레길 추천	0.072	0.429	0.668			
SEPU→올레길 추천	-0.144	-0.834	0.404			

IV. 결 론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Berkman & Gilson, 1978) 특히, 관광객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동기 이론과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Maccannell, 1973, 1999; Plog, 1974, 2001; Pearce & Cltabiano, 1983). 하지만 학자들의 관광동기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속히 수요가 늘고 있는 도

보여행객들의 동기에 관한 연구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박영아·현용호(2009)의 질적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도보여행 동기요인 결과를 양적 연구방법론과 접목하여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도보여행 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자아성찰, 자기사색, 자아성취, 자기정화 등 4개 요인을 제주도 올레길 도보여행의 동기의 척도로 개발할 수 있어 박영아·현용호(2009)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기존 관광동기에서 많이 밝혀지지 않았던 도보동기와 자아에 대한 인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도보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순·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한 질적방법의 결과가 치밀한 분석과정을 거치면서 검증되어 질적연구가 양적으로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개발하는 유용한 방법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척도개발 과정을 통해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의 요인구조를 기초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적연구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치밀하지 못할 경우 분석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질적 연구 조사를 더 신중하고 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척도 개발과정은 질적 연구의 산출물인 도보여행 동기항목의 구조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질적연구에서 밝혀졌던 30개 항목의 8가지 주제가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위한 전문가분석을 통해 24개 항목으로 정제되었으며, 측정항목 정제 단계에서 수정된 항목-전체상관계수가 0.4 이하인 9개 항목과 두 번째 단계로 수정된-전체상관계수가 0.5이하로 나타난 1개의 항목이 제거되어 총 14개 항목이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또한 본 조사에서 단일차원성검증, 교차타당도검증, 신뢰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예측타당도등 항목타당도 검증을 하는 본조사를 거쳤다. 특히 예비조사와는 다르게 자기사색에 있었던 항목들이 자아성찰과 자기사색 두 요인으로 나뉘어져 '자아성찰', '자기사색', '자아성취', '자기정화' 등 4개의 요인항목이 추출되어 각 해당요인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과 항목들로 척도가 개발되어 구조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양적방법론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칙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차순 확인요인모델과 2차순 확인요인모델을 검증한결과 이차순 확인요인모델로써 도보여행 방문동기는 재방문 의도를 제외한 올레길 방문만족과 올레길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어 다른 종류의 방문동

기척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측요인으로써 타당함이 밝혀졌다. 결국 30개 항목의 8가지 주제가 14개 항목 4가지 주제로 도보여행 동기 척도가 개발되어 각 연구방법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두 방법론을 동시에 활용하여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도보여행 동기를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되었던 도보여행 동기요인을 양적인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질적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도보여행의 동기에 대한 중요성과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질적연구는 그 진행과정에서 그 연구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이미 연구의 의미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양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질적조사인 경우 연구대상자의 독특한 주관과 체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주관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Hensley, 1999; Devellis, 2003). 최근 2007년 제 1코스가 개장된 이래로 국내에서는 도보여행객이 급격히 꾸준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학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오던 관광동기에 비해 사람들이 왜 도보여행을 선호하고 다시 가고 싶어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동기를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8가지로 분류된 30가지 항목을 척도로 구성하여 구성개념 타당도와 과정과 신뢰성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질적접근과 양적접근이 갖는 각각의 강점을 지닌 도보여행 동기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도보여행 동기 척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검증과 재조사를 통해 국내외 도보여행 확산 및 정책추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 올레길 20코스 중 7코스에 방문한 관광객들만을 대상으로 질적연구가 진행되었다. 후속연구는 다양한 제주 올레길 도보여행코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특히 타 지역에 있는 도보여행 코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도보동기를 조사하여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연구가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후속연구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연구를 병행하였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꾸준히 검증이 된 관광동기의 척도들을 병행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이 된 관광동기들을 양적연구에 병행하여 유사관련 척도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후속연구는 척도 개발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등 인구통계학적요소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기의 차이를 함께 분석 및 세분화하여 향후 도보여행과 관련한 문제점과 전략에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제주 올레길 안타까운 소식은 (매일경제, 2012) 향후 제주 올레길 개발 및 관광정책은 물론 관광객들의 도보여행길 코스를 방문하는 동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연구는 동기요인과 만족도, 물리적 환경, 품질 및 좀 더 다양한 변수와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인숙(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00.
- 동아일보(2012). [제주]바다의 속삭임... 들꽃의 향기... 바람과 걷는 16.5km
- 문화체육관광부(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박영아(2012). 도보여행길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제주 올레길 개발지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애착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2), 159-178.
- 박영아·현용호(2009).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7), 75-93.
- 박종구·심재명·진이환(2007). 도보산책자와 ATV 이용자 간의 레저갈등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31(4), 321-342.
- 정철·정란수·이훈(2011). 도보관광 수요와 파급효과 분석-제주올레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8), 389-408.
- 최병길·이영관 (2011). 도보관광지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가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7), 299-321.
- Ajzen, I., & Fishbein, M.(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 888-918.
- Anatasi, A.(1988).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Macmillan.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gozzi, R. P., & Phillips, L. W.(1982), Representing and Testing Organizational

- Theories: A Holistic Construal Approach, *Administration Science Quarterly*, 27(September), 459-489.
- Bearden, W. O., & Netemeyer, R. G.(1999). *Handbook of marketing scales: multi-item measures for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r research*. Thousand Oaks(CA): Sage Publicatons.
- Berkman, H. W., & Gilson, C. C.(1978). *Consumer behavior: Concepts and strategies*. Belmont, California: Dickenson Press.
- Bollen, K. A.(1991).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Byrne, B. M.(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ons Inc.
- Churchill, G. A. Jr.(1979).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ek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 64-73.
- Clark-Carter, D.(1997). *Doing quantitative psychological research: from design to report*. Hove, UK: Psychology Press Ltd. class (3rd ed.). (pp. 91-107)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2007).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 Sage.
- Crompton, J. L.(1979). Motivation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408-424.
- DeVellis, R. F.(2003).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Dunn, S. C., Seaker, R. F., & Waller, M. A.(1994). Latent variables in business logistics research: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15(2), 145-172.
- Ekkekakis, P., Backhouse, S. H., Gray, C., & Lind, E.(2008). Walking is popular among adults but is it pleasant? A framework for clarifying the link between walking and affect as illustrated in two studi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3), 246-264.
- Ewing, M. T., & Napoli, J.(2005). Developing and validating a multidimensional nonprofit brand orientation scal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6), 841-853
- Fodness, D.(1994). Measuring tourist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3), 555-581.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 Garver, M. S., & Mentzer, J. T.(1999). Logistics research method: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for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20(1), 33-57.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Hardesty, D. M., & Bearden, W. O.(2004). The use of expert judges in scal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face validity of measures of unobservable construct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7, 98-107.
- Hensley, R. L(1999). A review of operations management studies using scale development techniques.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17, 343-358.
- Hu, L.,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Huang, S., & Hsu, C. H. C.(2009). Effects of travel motivations, past experience, perceived constraint and attitude on revisit inten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8, 29-44.
- Hung, K., & Petrick, J. F.(2010). Why do you cruise? Exploring the motivations for taking cruise holidays, and the construction of a cruising motivation scale. *Tourism Management*, 32(2). 386-393.
- Iso-Ahola, S. E.(1982). Toward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9, 45-56.
- Jarno, S., & Raja, K.(2012). SF-Filmvillage as a Movie Tourism Destination –A Case Study of Movie Tourist Push Motivation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29(5), 460-471.
- Kim, Y. G., & Eves, A.(2012).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tourist motivation to consume local food. *Tourism Management*, 33(6), 1458-1467.
- Klenosky, D. B.(2002). The pull of tourism destinations: a means-end investig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 385-395.
- Ladhari, R.(2010). Developing e-service quality scales: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17, 464-477.

- MacCannell, D.(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589-603.
- _____ (1999). Staged authenticity. In.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experienc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2(2), 16-20.
- Malhotra, N. K., Hall, J., Shaw, M., & Crisp, M.(1996). *Marketing research: an applied orientation*. Sydney: Prentice-Hall.
- Manson, P., Kearns, A., & Bond, L.(2011). Neighbourhood walking and regeneration in deprived communities. *Health & Place*, 17(3), 727-737.
- Marsh, H. W., & Jackson, S.(1999). flow experience in sport: construct validation of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state and trait responses.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6(4), 343-371.
- Martin, I. M., & Eroglu, S.(1993). Measur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country imag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8, 191-210.
- Medsker, G. J., Williams, L. J., & Holahan, P. J.(1994). a review of current practices for evaluating causal models i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20(2), 439-464.
- Mentzer, J. T., & Kahn, K.(1995). a framework for logistics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16(1), 231-250.
- Mintel.(1998). *Special interest holidays. leisure intelligence*. London: Mintel.
- Nunnally J. C., & Bernstein, I. H.(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Pearce, P. L., & Caltabiano, M. L.(1983). Inferring travel motivation from travellers' experienc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2(2), 16-20.
- Plog, S. C.(1974). Why destination areas rise and fall in popularity.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Quarterly*, 14(4), 55-58.
- _____ (2001). Why destination areas rise and fall in popularity.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42(3), 13-24.
- Sheldon, B.(1978). Theory and practice in social work : a re-examination of tenuous relationship.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8, 1-22.
- Smith, D.(1987). The limits of positivism in social work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7, 401-416.
- Steenkamp, J. B., & van Trijp, H.(1991). The use of LISREL in validating marketing construc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8, 283-299.

Unger, L. S., & Kerman, J. B.(1983). On the meaning of leisure: an investigation of some determinants of the subjective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381-392.

Yoo, B., & Donthu, N.(2001). Developing and validating a multidimensional consumer-based equity scal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2(1), 1-14.

Yoon, Y., & Uysal, M.(2005).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destination loyalty: a structural model, *Tourism Management*, 26, 45-56.

Zaichkowsky, J. L.(1985). Measuring the involvement construct,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341-352.

2012년 9월 17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2년 10월 16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2년 10월 19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룩